

TV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다양한 세대가 부를 ‘희망송’ 되었으면”



가수 현숙, 신곡 ‘인생팁’ 발표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희망송’을 노래하고 싶었어요. 나이를 떠나 다양한 세대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현숙이 신곡 ‘인생팁’을 내놓았다. 한결같이 밝은 표정으로 유쾌하게 노래하는 그녀는 이번 노래는 경제한 리듬에 인생의 지혜를 담은 가사가 어는 때보다 기운을 ‘딱딱’ 불어넣어 준다.

복이 보너스처럼 오거든요.” 브라스 사운드가 경쾌한 댄스곡인 ‘인생팁’은 현숙과 20년간 호흡을 맞춘 작곡가 조만호 씨가 만들었다. 조씨는 현숙의 히트곡 ‘요즘 여자 요즘 남자’, ‘춤추는 탤버린’, ‘내 인생에 박수’ 등을 작곡했다. 신곡 음반의 재킷은 평소 전시회까지 열 정도로 그림 실력이 뛰어난 가수 남궁옥분 씨가 선불해준 캐릭터 디자인으로 꾸몄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뮤직비디오도 일본 유학생 조시욱 씨가 만든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여 젊은 층의 감각에 맞췄다.

EBS1

Table listing EBS1 programs including 'EBS 생생 영어', '건강한 아침', '만나고 싶습니다(재)', etc.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including '올림포스 <국어II-일파개념>', '고교 영어독해-junior', etc.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etc.

“조문객 맞는 상주 느낌으로 연기했어요”

KBS 월화극 ‘장사의 신’ 천봉삼 역 장혁

“상주는 큰 슬픔을 가지고 있지만, 조문객에 따라 웃어 보여야 할 때도 있잖아요. 천봉삼은 제가 보기에 ‘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애환이 많은 사람입니다.” 23일 처음 방송하는 KBS 2TV ‘장사의 신(神)-객주 2015’에서 주인공 천봉삼 역을 맡은 장혁은 “조문객을 맞는 상주의 심정으로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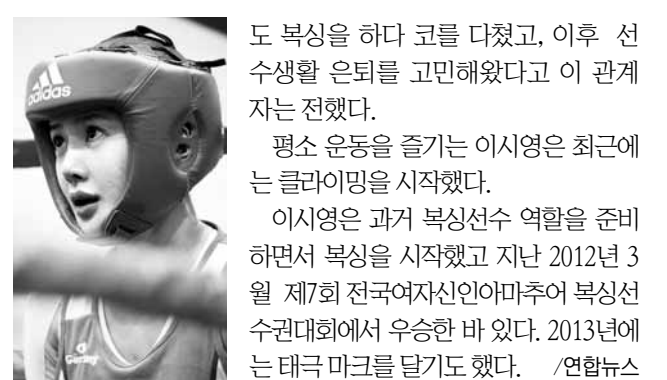
‘광개토대왕’ ‘대조영’을 만든 김 PD는 “드라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인데 많은 드라마가 그걸 놓치고 있다. 나도 그랬다. 이번에는 천봉삼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에 집중해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 영화 ‘순수의 시대’에 이어 잇따라 새연기를 선보이는 그는 천봉삼이 개천에서 용이 나듯 바다에서 시작해 거상이 되는 과정을 가벼운 듯 진중함 그만의 리듬으로 연기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혁은 천봉삼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봉삼에게 ‘봉이’(봉이 김선달)와 ‘봉사’(심봉사) 두 명의 형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복싱은 취미생활로만 할게요”

배우 이시영 복싱선수 은퇴

복싱 국가대표까지 지낸 배우 이시영이 복싱 선수 생활을 접었다. 소속사 에이와이드컴퍼니 관계자는 23일 “크고 작은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다 최근 경기 출전은 그만하기로 했다”며 “워낙 복싱에는 애정이 있기 때문에 취미 생활로는 계속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 복싱을 하다 코를 다쳤고, 이후 선수 생활 은퇴를 고민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평소 운동을 즐기는 이시영은 최근에는 클라이밍을 시작했다. 이시영은 과거 복싱선수 역할을 준비하면서 복싱을 시작했고 지난 2012년 3월 제7회 전국여자신인아마추어 복싱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2013년에는 태극마크를 달기도 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4일(음 8월 12일 癸卯). 48년생 진행하는 속도는 더디지만 정 뜻하는 바는 이뤄질 것이다. 60년생 드디어 국면을 전환시켜야 할 때가 됐다. 72년생 갑언이설에 현혹되어선 곤란하다. 84년생 과감하게 결정하고 용기 있게 진행해야. 행운의 숫자 : 07, 66